



서틀콧 대표들 화순서 맹혼 23일 '금빛 링크' 이용대(오른쪽) 등 배드민턴 국가대표 48명이 화순 하니움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는 화순출신 김중수 감독의 지도 아래 이달말까지 훈련이 진행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저리타임 '천금의 결승골'

박주영 7경기만에 시즌 6호골·모나코 승리 이끌어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뛰는 박주영(25·AS모나코)이 후반 추가 시간 기적 같은 시즌 6호골로 모나코에 승리를 안겼다. 박주영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FC소쇼와 2010-2011 정규리그 19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뽑아냈다. 지난달 28일 OGC 니스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시즌 5호골을 쏘아 올린 박주영은 한 달여 만에 6번째 골을 쏘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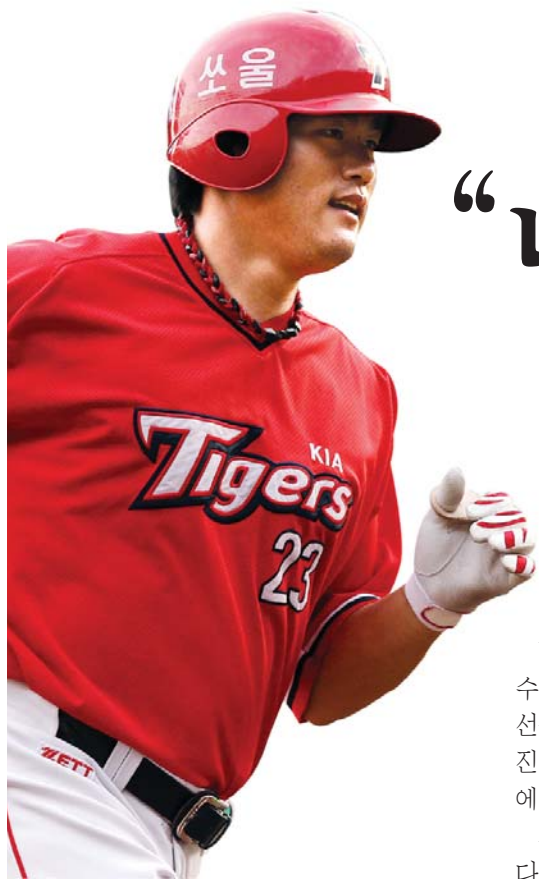
최근 6경기(3무3패) 동안 부진을 거듭했던 모나코는 박주영의 역전 결승골로 소쇼를 2-1로 꺾고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2승1무6패로 17위까지 떨어져 2부 리그 강등을 코앞에 뒀던 모나코(3승10무6패)는 순위 변동은 없었지만 지난 11월8일 남시와 경기(4-0승) 이후 45일 만에 거둔 승리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

모나코는 전반 8분 미드필더 말 퉁가 은차이의 골로 일찌감치 앞서 갔지만 후반 2분에 자책골을 내줘 1-1로 맞섰다.

양팀 모두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후반 45분이 지날 때까지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 3분 '해결사' 박주영의 발끝에서 갈렸다.

후반 38분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린 박주영은 후반 43분엔 문전 앞에서 강한 발리 슈팅으로 골 감각을 다졌다. 후반 45분에도 골문 앞에서 날카로운 점핑 헤딩슛을 날렸던 박주영은 후반 추가시간 3분 결승골을 쏘아 기여 모나코의 구세주가 됐다. 박주영의 역전 결승골이 터지자 라포르 감독은 눈물을 보이며 7경기만의 승리를 자축했다. /연합뉴스



'KIA 캡틴' 최희섭 연봉 4억 동결 “내년엔 홈·런·왕”

김선빈 7000만원·유동훈 1억8000만원 사인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큰 부상과 슬럼프 없이 꾸준히 경기를 뛰었던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팀의 중심타선을 책임지고 있는 최희섭은 포수 김상훈에 이어 새로운 주장에 선일패 앞으로 선수단을 이끌게 된다. 주장으로 책임감이 더해진 최희섭은 지난 5일 결혼식을 올린 뒤 3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마무리 캠프에도 참여했다. 최희섭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다. 힘든 상황에도 선수들이 잘 참고 열심히 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다”며 일본에서의 마무리 캠프를 평가했다.

주장으로서 선수단에 강조하는 것은 '팀워크'다.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기본 에절을 강조해왔던 최희섭은 간간히 주장으로 역할을 해 팀을 하나로 묶겠다는 각오다.

“팀이 하나가 되어야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적인 플레이는 각자 노력하고 연구해야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각

자의 몫이지만 단체운동 단체생활에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함께 생활하고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팀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KIA의 대표적인 '산 마니아'인 최희섭은 올해도 산에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을 계획이다. 체력 강화를 위해 김상훈, 나지완과의 지리산 등반과 설악산행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KIA는 23일 최희섭 등 6명과 2011시즌 연봉협상을 끝내면서 재계약 대상자 52명중 44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안치홍과 '꼬꼬마 키스톤'을 이었던 내야수 김선빈이 4500만원에서 55.6% 인상된 7000만원에 재계약 했고, 올 시즌 상무에서 제대한 내야수 김주형이 동결된 25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투수 이대진과 유동훈은 각각 2700만원과 3000만원이 삭감된 8300만원과 1억8000만원에 사인했다. 외야수 채종범도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지소연 한국 축구의 ★

대한축구협 올해의 선수 선정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지소연(19,고베 아이야)이 올해 한국 축구를 빛낸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박지성과 지소연은 23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축구협회 시상식에서 남녀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박지성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올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이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탤었다.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2010-2011시즌에 벌써 6골(4도움)을 넣어 한국인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고 골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박지성은 리그 일정 때문에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아버지 박성종씨가 대신 상을 받았다.

여자축구 기대주인 지소연은 올해 독일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8골을 터트리며 한국 대표팀을 3위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의 선수상은 축구협회가 1983년 프로축구 K-리그가 출범해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하면서 사라졌다가 올해 부활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獨 분데스리가 최우수 신인

2010-2011시즌 전반기

한국축구의 기대주 손흥민(18·함부르크SV)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010-2011시즌 전반기 최우수 신인으로 뽑혔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올 시즌 전반기 결산에서 최우수 데뷔선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홈페이지에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골을 기록한 손흥민이 정규리그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월30일 FC 쾰른과 10라운드 원정 경기(2-3 패)

에서 첫 골을 터트리던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손흥민이 이미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팀 내 최다인 9골을 넣었고 발가락을 다쳤던 사실까지 자세히 소개돼 있다. 또 16세이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국외유학 프로그램으로 함부르크에 온 손흥민이 지금은 블라덴 페트리치, 파울로 게레로, 루트 판 니스텔로이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2011년 아시안컵 예비선수로 뽑힌 손흥민은 지난 20일 귀국해 대표팀의 시귀포 전지훈련에 합류해 아시안컵 출전 꿈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듣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